

## 애니메이션 2화(설문대할망)

번호	배역	내용
02-01	하영	다녀오겠습니다~!
03-01	하영	(콧노래 흥얼거리기) 흥흥~ 흥흥흥~
05-01	하영	(즐거운 표정으로) 흥흥~ 히힛
08-05	하르방	(음산하고 무겁게)이 책을 ㅁ·ㅁ냥 폐지 말라!
09-01	하영	(강한 빛에 눈이부신듯 낮게 신음한다) 으앗....
10-01	누리	옛날 제주에 설문대 할망이 살았어. 이 할망은 지레가 잘도 커신디 그만이 힘도 세엇덴. 할망이 입은 치메도 어마장장ㅎ·게 커신디 할망은 치메에 흑 담안 날라당 오름덜을 맨들앗저. 저디 저 섬 보묘시냐? 저 섬도 할망이 데긴 돌이 털어정 맨들아진 섬이라. 경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를 흥끔씩 맨들아 간 거라. 경흐단 어느 날-
12-01	노모	언제ㄱ장 영 가심 아픈 일을 당혜사 흥·느니.
12-02	촌장	바당 우티서 비브름 만나른 우린 다 죽은 목숨이난게.
13-01	청년	심들어도 드릴 놓아지민 좋을 건디.
13-02	하영	(궁금해하며) 무슨 일이에요?
14-01	촌장	육지에 쓰·리 사례 간 배가 굴라앗아 부럿덴햐저. 다른 건 먹을 케 엇인디. 쓸 떨어지민 우린 ㅁ·ㄴ 굶어사 흥·여.
15-01	누리	맛디 ㄴ·ㅁ·ㄴ이영 조영 하간 곡석이영 채소 갈민 웰 거 아니우파?
16-01	촌장	(고민하며) 경흥·젠 해도 땅이 너미 거칠어부난 잘 돼질 안흥·ㄴ다..
16-02	노모	(한숨을쉬며) 드리만 놓으민 다 해결웰 건디마쑈.
16-03	촌장	(갑갑한듯)저 먼먼흥·ㄴ 육지ㄱ장 어떻 드릴 놔게!
17-01	하영	다리를 놓을 만큼 힘이 쎈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.
17-02	누리	경흥·ㄴ 사람이 잇주. 이 제주도를 맨든 분.
17-03	하영	아! 맛다!
17-04	하영	설문대 할망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하면 돼요!
18-01	촌장	맛다! 설문대할망이 잇엇지.

18-02	청년	설문대할망이라니?
20-01	노모	(제품소개하듯 강조하며) 흑을 날라당 할락산을 맨든 설문대할망!
20-02	촌장	성산 일출봉을 ㅁㅁ ㄹ렛판으로 씨는 설문대할망!
20-03	청년	아! 알아마썸! 할락산에 앓앙 오쭈 뉘신디 탐라계곡이 생겼젠 ㅎ ㄴ 큰 할망 말이우짜?
21-01	노모	어뎡ㅎ ㄴ니? 심만이ㅎ ㄴ 돌을 흑 흑 데끼는 설문대할망이엔 ㅎ ㄴ문?
21-02	촌장	ㄷ ㄹ리 놓는 건 일도 아니주게!
22-01	하영	그런데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?
23-01	촌장	(멀리 가르키며) 저~디 할락산 봉오질 베영 뉘 이실거여.
24-01	촌장	(기대하며)자, 이젤랑 설문대할망 깨우레 가게! 누게가 가코?
25-01	노모	(촌장이 자기를 쳐다보자)응?? 켈룩! 켈룩,켈룩!
25-02	청년	응?? 아이고! 깎자기 배가?
25-03	누리	걱정 마셔! 하영이영 나가 다녀오쿠다.
29-01	하영	(두리번거리며)으음.. (뭔가를발견하고) 앓!
31-02	하영	(감탄하며) 우와아~ 예쁘다!!
32-01	누리	(뿌듯해하며 으쓱거린다)아름답지! 이디 백록담 풍경은 설화나라에서도 ㅅ고 경치를 자랑ㅎ ㄴ메!
32-02	하영	아참, 그런데 설문대할망은 어디에 있어?
32-03	누리	(두리번거리며) 게메. 분명 이 소린디.
32-04	설문대	누게가 날 좇암신고?
32-05	하영/누리	(당황하며) 앳??
32-06	하영	(놀라며) 까아아아아악~!
32-07	누리	(놀라며) 으아아아아악!
33-01	설문대	게난. 부탁ㅎ ㄴ ㄹ 게 셔?
33-02	누리	할마님, 므을 사름덜 하영 죽엄시난, 육지깁장 가는 드릴 놓아 줍서!
34-01	설문대	드릴 놓아 도렌 햄서! 육지깁장? 무사?
34-02	하영	쌀을 구하러 육지에 가야 해서요!
35-01	설문대	므을 사름덜 무사 배 ㄹ정 잇지 아녀냐?

36-01	누리	절이 너무 높아부난 ㅁ·ㄴ 골라앗아부런마썸. 용시ㅎ·기엔 땅이 너무 거칠언 ㅁ을 사름덜이 ㅁ ㄹ업수다.
37-01	설문대	(고민하는) 흐으음..
37-02	설문대	기여 알았저. 대신 나 부탁 ㅎ·나 들어주민 ㄷ릴 놓아주키여.
38-01	하영	부탁이요?
39-01	설문대	이 시상엔 나 덩치에 맞는 속곳이 었저. 속곳이 었이난 언언ㅎ·ㄴ 저실을 ㅈ·ㄴ딜 수가 었어. 올 저슬 지낼 수 ㅅ게 멩지로 ㄷ듯헌 속곳 ㅎ 불 맨들아주민 ㄷ릴 ㄴ 주키여.
40-01	하영	(기뻐하며) 네! 마을 아저씨들한테 그렇게 전할게요! (웃으며) 헤헛
41-01	촌장	무신거? 멩지로 속옷 해주민 ㄷ릴 ㄴ주켤? 멩지 속곳은 무사?
42-01	하영	겨울이 너무 추워서 필요하시대요.
43-01	노모	설문대할망 속곳 맨들젠 ㅎ·민 이디 이신 누엘 ㅁ·ㄴ 처사ㅎ·쿠다.
44-01	노모	(호통하며) 뭇들 햄시니? ㅎ·ㄴ저 ㅁ·몽ㅎ·라
49-01	노모	(힘들어하며) 아이고...아이고..
49-02	촌장	(소리치며) ㅎ·..ㅎ·ㄴ동이 모질린게!
50-01	촌장	(당황하며) 이걸론 멩지가 족양 설문대할망 속곳 못 맨든다!
51-01	청년	누에 질루젠 ㅎ·ㅁ 내년이나 ㄷ어사 ㅎ·ㅁ니다!
51-02	촌장	영ㅎ·ㄴ 게 아니라 할망 ㅅ아강 ㅅ정이라도 해 게! 누게가 가크라?
52-01	노모	(자기를 보자 깜짝 놀라며) 흐익! (꽝꽝댄다) 아이고..아이고..
52-02	청년	(자기를 보자 깜짝 놀라며) 히익! (배를 움켜쥐며) 아이고! 징심에 먹은!
52-03	촌장	(소리치며)뻘저! 요놈의 자숙아!
53-01	촌장	하영아! ㅎ번만 더 부탁ㅎ·키여이!
53-02	사람들	제발 우릴 살려 줘서! 제발!
56-01	하영	할머니! 저희 왔어요!
57-01	설문대	(기뻐하며) 오오! 약속ㅎ·ㄴ 때가 ㄷ엇구나. 멩지 속곳은 어떻 다 맨들아져덴!
58-01	하영	(곤란해하며)어... 죄송해요 할머니.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누에를 키우고 명주를 만들었는데 옷감이 모자라서...

59-01	설문대	(크게 실망하며) 경헨 멩지 속곳을 못 맨들앗텐 말가?
60-01	누리	딱 일 년만 더 지들려주민 멩지 속곳 다 맨들 수 잇텐마썸!
61-01	설문대	(화를내며) 나그라 속곳 엇이 일 년 이나 살렌?
62-01	설문대	(속상해하며) 멩지 속곳 엇이 저실을 어떻 난텐 말가?
63-01	설문대	나 몸이 이 자락 큰 걸 누겔 닻ㅎ·코! 옷도 口·口냥 못 입는, 이 산 만이 ㅎ·ㄴ 몸뎡이! 아이고, 속상ㅎ·다. 속상ㅎ·여.
64-01	하영	(걱정하며 울먹인다) 하..할머니..
65-01	하영	(다급하게) 할머니! 어디가세요?!
65-02	설문대	물장오리더레 감쨌!
68-01	하영	저기있다!
70-01	하영	(다급하게) 할머니! 위험해요! 할머니~!
71-01	설문대	(힘없이) 옷도 나 口·슴냥 못입는디 더 살앙 뵈ㅎ·르거니? 미안ㅎ·주마는 사름덜신디 더 이상 날 좇지 말렌 곶라.
72-01	하영	(어쩔줄 몰라하며) 누리야, 이야기가 잘못 되어 가는 것 같아! 할머니가 사라져버렸어!
72-02	누리	아니여, 이야기 잘못 뵈지 아녜어.
74-01	누리	사름덜이 약속을 지키지 못ㅎ·난 실망ㅎ·ㄴ 설문대할망은 그때부터 세상에서 안보였저.
74-02	하영	그럼 할머니를 다시 보지 못 하는 거야?
74-03	누리	경ㅎ·진 아녜 테지. 너가 돌아강 세상 사름덜신디 제주도 이야기ㅎ·르 때마다 설문대할망이 뽕 나타낭 아름다운 제주도를 어떻 맨들앗 쥬 곶라 줄 거여.